(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148-171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4.4.54.148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로마서 14:1-2와 15:1의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번역에 대한 고찰

김두석*

1. 서론

πίστις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믿음'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1] 그럼에도 대부분의 영역본과 한역본은 지배적인 번역을 따라 로마서 14:1-2와 15:1을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번역한다. 로마서 14, 15장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이교도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을 다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번역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고 도리어 이교도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오해를

* McMaster Divinity College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광신대학교 신약학 조교수로 재직 중. jclife2004@gmail.com.

1) 신약성서 연구에서 πίστις 논쟁은 이 단어의 의미를 일반적인 용례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구원론적 신앙의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지의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전자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은 '믿음' 외에도 '신실함', '순종', '확신'과 같은 의미의 다양한 용례를 신약성경에 도입하는 시도를 하지만, 후자의 주장을 하는 자들은 '믿음'이라는 의미를 고수한다. T. Morgan,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Pistis and Fides in the Early Roman Empire and Early Church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이승현, "바울의 Πίστις 이해 — 신뢰, 믿음 혹은 순종? 모건(T. Morgan)의 Πίστις 이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9 (2021. 10.), 168-195를 참고하라. 이와 같은 해석의 차이는 지난 40년간 지속되어 온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논쟁과 연관이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롬 14장과 15장에서 믿음은 여격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목적어적 소유격과 주어적 소유격의 논쟁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πίστις를 한정하는 대상도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논쟁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어휘의 의미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연구의 범위가 중복될 수 있다.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고는 πίστις의 의미를 어휘적, 구문적, 문맥적 배경에서 파악한 후 로마서 14, 15장에 나타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대안 번역을 제안한다.[2)]

2. 문제 제기 및 핵심 논지

1971년 폴 S. 미니어(P. S. Minear)의 제안 이후 로마서 14장과 15장은 로마서의 수신자와 기록 목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장소로 인정되어 왔다.[3)] 로마 공동체는 '약한 자'(롬 14:1)와 '강한 자'(롬 15:1)로 묘사되는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바울의 묘사에 의하면 약한 자는 채소만 먹으며(롬 14:2)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롬 14:5). 반면 강한 자는 고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며(롬 14:2)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롬 14:5). 이와 같은 묘사는 약한 자를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강한 자를 이교도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제공한다.[4)] 그리고 갈등의 핵심이 음식 규례와 정결법을 포함한 유대주의 전통에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5)]

---

2)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고에서 적용하는 번역의 방식은 해석을 통한 번역이다. 물론 번역과 해석 사이에는 개념적 차이가 존재한다. 번역이 언어기호의 전환이라면 해석은 텍스트의 의미의 본질을 드러내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둘은 기호와 의미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원작자는 언어라는 기호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며 번역은 동일한 의미를 하나의 기호에서 다른 기호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전달한다. 즉, 원작자든 번역자든 모두 언어라는 '기호'를 다루고 있으며 그 기호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번역은 상응하는 기호 체계의 기계적 단순 전환의 작업이라기보다 해석에 기반한 의미의 전달과 관련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번역 이론과 정의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라. S. Bassnett-McGuire,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Methuen & Co. Ltd, 1983); E. A. Nida and C.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82); J. S. Holmes, ed., *The Nature of Translation* (The Hague & Paris: Mouton & Co, 1970); J. C. Catford,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3) P. S. Minear, *The Obedience of Faith: The Purposes of Paul in the Epistle to the Romans*.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19 (London: S.C.M., 1971).

4) 로마서 주석을 작성하거나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기에 모두 소개할 수 없지만 몇몇의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B. R. Gaventa, *When in Romans* (Grand Rapids: Baker, 2016); S. McKnight, *Reading Romans Backwards: A Gospel of Peace in the Midst of Empire* (Austin,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19); S. E. Porter, *The Letter to the Romans: A Linguistic and Literary Commentary*. NTM 37 (Sheffield: Sheffield Phoenix, 2015); D.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5) K. P. Donfried, ed., *The Romans Debate*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1)는 다수의 학

로마서 14-15장의 많은 연구가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힌다고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6] πίστις가 약하고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쉽게도 많은 주석들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7] 이와 같은 무관심은 번역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영역과 한역 성경이 이견 없는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 NIV 로마서 14:1-2 Accept the one whose ***faith*** *is weak*, without quarreling over disputable matters. One person's faith allows them to eat anything, but another, whose ***faith*** *is weak*, eats only vegetables. 15:1 *We who are strong* ought to bear with the failings of *the weak* and not to please ourselves.
>
> ESV 로마서 14:1-2 As for the one who is *weak in* ***faith***, welcome him, but not to quarrel over opinions. One person believes he may eat anything, while *the weak person* eats only vegetables. 15:1 *We who are strong* have an obligation to bear with the failings of *the weak*, and not to please ourselves.
>
> NASB 로마서 14:1-2 Now accept the one who is *weak in* ***faith***, but not to have quarrels over opinions. One person has faith that he may eat all things, but the one *who is weak* eats only vegetables. 15:1 Now *we who are strong* ought to bear the weaknesses of *those without strength*, and not just please ourselves.
>
> NRSV 로마서 14:1-2 Welcome those who are *weak in* ***faith*** but not for the purpose of quarreling over opinions. Some believe in eating anything, while *the weak* eat only vegetables. 15:1 *We who are strong* ought to put up with the failings of *the weak* and not to please ourselves.
>
> YLT 로마서 14:1-2 And him who is *weak in the* ***faith*** receive ye -- not to determinations of reasonings; one doth believe that he may eat all things -- and he *who is weak* doth eat herbs; 15:1 And we ought -- *we who are strong* -- to bear the infirmities of *the weak*, and not to please ourselves;
>
> 『공동』 로마서 14:1-2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자들이 참여하여 로마서의 목적과 수신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자료이다.

6) 물론 모든 이가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정체성에 대한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스(A. A. Das)와 쥬잇(R. Jewett)은 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A. A. Das, *Solving the Romans Debate* (Minneapolis: Fortress, 2007); R. Jewett, *Romans: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7)를 참고하라.

7) πίστις 단어 자체가 학문적 관심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논쟁에서 가장 큰 연구대상 중 하나는 πίστις 어휘 의미이다. 그러나 필자가 주목한 것은 갈 2장이나 롬 3장에서 논의하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논쟁은 인류의 구원의 방식과 직결되기 때문에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구원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는 롬 14장의 πίστις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고 반가이 맞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밖에는 먹지 않습니다. 15:1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새번역』 로마서 14:1-2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15: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 로마서 14:1-2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이 맞아 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1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위 인용에서 기울임 글씨체와 굵은 글씨가 보여 주듯이 로마서 14:1-2와 15:1의 한역 및 영역 성경은 공통점을 보인다. 영역본은 공통적으로 로마서 14:1의 πίστις를 'faith'라는 단어로 전환하였다. 또한 '믿음'을 약함의 영역(in faith)을 나타내도록 번역하였다. 영역본 간의 상이점은 NIV가 πίστις를 주어로 전환하고 be동사와 더불어 '약함'을 주격보어로 전환한 점이다. NASB는 그리스어에는 명사적 분사로 사용된 ὁ ἀσθενῶν(롬 14:2)을 관계대명사절로 전환하였기에 NTG[28]과 UBS[5]에는 존재하지 않은 πίστις를 포함하였다. 한글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번역을 한다. 위에 제시한 번역들은 모두 동일하게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번역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어 성경에 πίστις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로마서 14:2; 15:1까지도 πίστις를 포함하는 번역을 했다. 이것은 πίστις가 생략된 것으로 가정한 번역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 '믿음이 약함'과 '믿음이 강함'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번역이 로마서 14, 15장의 해석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다.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강한 자이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인가? 오히려 야웨를 향한 믿음이나 율법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음식 규례를 잘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또한 만약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약하고 이교도적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고 강한 믿음을 가졌다면 왜 바울은 강한 믿음을

가진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14:10) 경고하는가?[8]

서구 기독교, 특히 프로테스탄트의 전통에 서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안하는 신학적인 개념은 꽤 견고하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믿음, 그리고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지적 동의와 수용으로서의 믿음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념을 로마서 14장의 이해에 적용하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로마서 14:1-2와 15:1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하게 붙드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대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울은 로마서 14:1에서 πίστις를 구원의 방편이 되는 종교적 수용이나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개역개정』 로마서 14:2 역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고 번역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가 채소만 먹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남겨두었다. 하지만 NTG[28] 로마서 14:2에는 약한 자를 한정하는 πίστις가 등장하지 않는다. 즉, NTG[28] 로마서 14:2를 직역하면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믿음/확신/자신감이 있고(πιστεύει)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로 번역이 가능하다. 또한 『개역개정』 로마서 15:1이 '믿음이 강한 자'로 번역하였는데, NTG[28] 로마서 15:1에는 πίστις가 등장하지 않고 단순히 ἡμεῖς οἱ δυνατοὶ('우리 강한 자들') 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로마서 15:1을 "우리 강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번역이다. 그러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역시 로마서 14:2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푸성귀만 먹습니다." 로 번역하면서 NTG[28]에는 없는 πίστις를 포함한 번역을 하고 있다.[9]

또 다른 해석의 난점은 로마서 14:1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문법적 그리고 구문론적 역할이다. 로마서 14:1의 구문을 분석하면 본동사는 '너희가 받으라(προσλαμβάνεσθε)'이며 분사 "약한 자(Τὸν ἀσθενοῦντα)"는 명사적 분사(substantival participle)로서 본동사의 목적어 기능을 한다. 그렇다면 여격명사 "믿음(τῇ πίστει)"은 목적어 기능을 하는 분사의 영역(dative of sphere)을 제한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동사의 행위의 수단(dative of means)으로 기능

8) 최선미, "로마서의 약한 자와 강한 자: 로마서 14:1-6을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36 (2018), 119에서도 필자와 유사한 의심을 드러낸다.

9) 이와 같은 번역은 바울이 롬 14:1에 나와 있는 '믿음이 약한 자'라는 동일한 구문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고 πίστις가 생략하고 단순히 '약한 자'라고만 기록했다는 가정이 전제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하고 있는가?[10] 만약 전자라면 '너희는 믿음이(에) 약한 자를 받으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후자에 해당한다면 '너희는 약한 자를 믿음으로 받으라'는 번역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πίστις의 의미의 다중성과 구문의 이중적 해석 가능성은 본문 해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본 논문은 로마서 14:1, 2; 15:1의 대안 번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대안 번역: 너희는 확신이 약한 이들을 받으라 (롬 14:1).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며, [확신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는다 (롬 14:2). 할 수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즐겁게 하기보다 할 수 없는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롬 15:1).

위 대안 번역은 전통적인 번역과 동일하게 πίστις가 분사 τὸν ἀσθενοῦντα를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지만 단어의 의미를 '믿음'이 아닌 '확신'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번역은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연약한 믿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나타나는 특정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확신의 연약함을 암시하는 번역이다.[11] 이와 더불어 위 대안 번역은 로마서 15:1의 '강함'(δυνατός)을 개인의 강한 믿음으로 보지 않고 로마서 14장의 음식 문제의 문맥에 비추어 '할 수(먹을 수) 있는 자들'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본 논문은 세 가지 단계 — 의미론적 단계, 구문론적 단계, 문맥의 단계 — 의 분석을 통해 위 대안 번역을 논증한다.[12]

---

10) 그리스어 여격의 기능과 의미 그리고 용례에 관해서는 J. P. Louw, "Linguistic Theory and the Greek Case System", *Acta Classica* 9 (1966), 73-88;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72-175; A. J. Köstenberger, B. L. Merkle, and R. L. Plummer, *Going Deeper with New Testament Greek: An Intermediate Study of the Grammar and Syntax of the New Testament*, Rev. ed. (Nashville, TN: B&H Academic, 2020) 121-139; D. Mathewson and E. B. Emig, *Intermediate Greek Grammar: Syntax for Students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6), 1-33을 참고하라.

11) 필자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이와 같은 이해를 지지한다. J. A. Fitzmyer,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3 (New York: Doubleday, 1993), 688; E. Käsemann, *Commentary on Romans*, G. W. Bromiley, trans. (Grand Rapids: Eerdmans, 1980), 365, 374, 379; C. E. B.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9-16*, ICC (Edinburgh: T. & T. Clark, 1975), 698, 700.

12) 문장의 문법 요소와 어희의 의미 파악을 위하여 위 세 가지 요소의 중요성은 로우(J. P. Louw)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J. P. Louw, "Linguistic Theory and the Greek Case System", 77.

3. 로마서 14:1-2와 15:1 번역의 대안

3.1. 의미론적 분석

3.1.1. πίστις의 어휘적 의미론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πίστις라는 단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에서 절대적 존재를 향한 신앙과 교리적 진술만을 의미하거나 수동적인 지적 동의와 수용을 의미하는 믿음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또한 매번 율법의 반대되는 개념으로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πίστις는 신념, 신뢰, 인내, 충성, 순종, 신실함과 같이 폭넓은 의미의 스펙트럼 가지고 있다.[13]

어휘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용례 연구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하지만 πίστις의 모든 용례를 분석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비단 해당 어휘의 높은 빈도수와 문헌의 방대함 때문만이 아니라 용례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단어의 의미를 제안하는 방식 자체의 한계 때문이다. 용례를 통하여 의미를 결정하는 방식은 어휘의 다의성(polysemy)이론에 기초한 방식인데, 문맥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의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특정 문맥에 대입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다.[14]

예를 들어 ἐντροπή와 αἰδώς라는 단어는 '수치'로 주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존중'과 '경외'라는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καυχάομαι 역시 바울 서신에서 한 편으로는 '자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고후 12:5) 또 다른 곳에서는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로(롬5:2) 사용된다. 그렇다면 이런 상반된 의미를 무슨 기준으로 대입하여 이해하는가?

πίστις의 경우도 동일하다. 신약과 칠십인역에서 해당 어휘는 다양한 내포 의미를 가지고 있다. LXX 신명기 32:20에서 πίστις는 주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역한 세대를 묘사하는 데 쓰인다.[15] 『개역개정』은 '진실'로 번역

---

13) 최근 πίστις의 어휘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방대한 문헌 비교 연구는 N. 굽타, 『바울과 믿음 언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지적 동의인가, 신실함 행함인가』, 송동민 역 (고양: 이레서원, 2021)을 참고하라. 어휘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논쟁은 'πίστις'가 믿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신실함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이 논쟁은 지난 40년간 지속된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논쟁의 일부이다. 『개역개정』 롬 3:3과 갈 5:22도 πίστις를 믿음으로 번역하지 않고 신실함(미쁘심)과 충성으로 번역하였다.

14) 하지만 여전히 다의성에 기초하여 πίστις의 의미를 제안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매틀락(R. B. Matlock) 역시 이 단어는 다의성을 가진 단어라고 제안한다. R. B. Matlock, "Saving Faith: The Rhetoric and Semantics of Πίστις in Paul", M. F. Bird and P. M. Sprinkle,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Peabody: Hendrickson, 2009), 74.

15) γενεὰ ἐξεστραμμένη ἐστίν, υἱοί, οἷς οὐκ ἔστιν πίστις ἐν αὐτοῖς. (이는 패역한 세대요 자녀들, 그

하였지만 사실 '신실함', '진실', '믿음'과 같은 의미를 대입해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LXX 사무엘상 26:23에서는 πίστις가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다.[16] πίστις는 목적어로 사용되고 주어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신적 대상을 향한 믿음이나 율법의 반대되는 의미의 믿음 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LXX 열왕기하 12:16(왕하 12:15)에서 πίστις의 주어는 성전 일꾼들이며 그들이 성전의 직무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므로 믿음보다는 신실함이나 성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다.[17] LXX 역대상 9:22, 26, 31에서 『개역개정』은 πίστις를 '맡은 바 됨'으로 번역하였는데, '신뢰'로 번역이 가능하다.[18]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직분을 맡기기에 자격이 있는 대상을 신뢰할 만한 혹은 믿을만한 존재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πίστις는 '충성', '확신', 혹은 '언약'과 '약속'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LXX 느헤미야 10:1(느 9:38)와 마카베오3서 3:10은 πίστις가 '서약' 혹은 '약속'으로 번역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19]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세우고 기도하는 장면을 그린다. 이때 πίστις를 '신실함' 혹은 '믿음'으로 번역하는 것은 문맥에서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언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마카베오3서 3장은 핍박받는 유대인들과 헬라 제국의 관계를 그린다. 3:10에서 어떤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제공한다.[20] 이때 πίστις는 동사 δίδωμι의 목적어로 사용되며 그 행위의 주어는 헬라인들 이다. 즉,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신실함이나 충성을 제공한다는 이해는 어울리지 않으며 오히려 '믿음'을 주거나 '확신' 혹은 '약속'을 준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근접 문맥인 마카베오3서 3:3; 5:31에서는 πίστις가 '충성'의 의미가 있다.[21] 이곳에서는 헬라 제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묘사할 때 πίστις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의

들에게는 πίστις가 없다.)

16) κύριος ἐπιστρέψει ἑκάστῳ τὰς δικαιοσύνας αὐτοῦ καὶ τὴν πίστιν αὐτοῦ, (주께서 그의 공의와 πίστις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17) ὅτι ἐν πίστει αὐτῶν ποιοῦσιν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πίστις로 일한다.)

18) τούτους ἔστησεν Δαυιδ καὶ Σαμουηλ ὁ βλέπων τῇ πίστει αὐτῶν.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들을 πίστις로 세웠다)

19) LXX 느 10:1 καὶ ἐν πᾶσι τούτοις ἡμεῖς διατιθέμεθα πίστιν (우리가 이 모든 일로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

20) 마카베오3서 3:10 ἤδη δὲ καί τινες γείτονές τε καὶ φίλοι καὶ συμπραγματευόμενοι μυστικῶς τινας ἐπισπώμενοι πίστεις ἐδίδουν συνασπιεῖν (이미 몇몇의 이웃과 친구들과 동업자들이 그들을 따로 불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언약을 맺었다.)

21) 마카베오3서 3:3 οἱ δὲ Ιουδαῖοι τὴν μὲν πρὸς τοὺς βασιλεῖς εὔνοιαν καὶ πίστιν ἀδιάστροφον ἦσαν φυλάσσοντες,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제국에 대하여 확고한 충성을 보인다.)

의미보다는 '충성' 혹은 '신실한 태도'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마카베오3서 5:44는 '확신' 혹은 '자신감'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근접 문맥인 5:31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충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5:44에서는 '확신'의 의미를 나타낸다.

신약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 마태복음 8:10; 9:2, 22와 같이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에서 언급되는 πίστις와 마태복음 23:23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나 율법의 근본정신을 져버리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책망하는 장면에서 사용하는 πίστις는 모두 같은 의미인가? 영역본 ESV는 마태복음 8:10; 9:2, 22의 πίστις를 믿음(faith)으로 번역한 반면 마태복음 23:23의 πίστις는 신실함(faithfulness)으로 번역한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신실함인가?

이와 같은 다면적 혹은 다의적 연구는 그리스어 사전에도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다. 로우-나이다 그리스어 사전은 πίστις의 의미 범주(semantic domain)를 6가지로 제안한다. 그런데 사도행전 17:31의 πίστις는 '증거와 같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의미범주에 포함시킨 반면에 디모데전서 5:12의 πίστις는 '언약과 서약'의 의미에 해당한다고 제안한다. 그렇다면 무슨 기준에서 동일한 단어를 하나는 증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약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가?[22]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용례 분석을 통해 해당 어휘의 의미로 제안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양적 분석으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한 문맥에서 사용되는 πίστις의 의미를 다른 문맥에 대입할 수는 없다. 언어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용례를 통한 의미 파악은 화용론(pragmatics)적 의미이지 어휘의 의미론(semantics)적 측면은 아니다.[23]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에는 다의어적 접근으로 어휘의 뜻을 파악했다면 최근에는 단의어(monosemic words)적 접근이 더 적실한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24]

---

22) *LSJM*은 πίστις를 신뢰, 믿음, 확신, 자신감, 설득 등의 의미를 제공하며 *BAGD*는 신실함, 신뢰할 수 있는, 서약, 자신감으로 표기한다. 특히 *BAGD*는 πίστις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목적어로 둘 때는 그 대상에 대한 종교적인 신뢰를 의미하지만 목적어를 갖지 않을 때는 종교성과 관련된 의미라고 설명한다.

23) 언어학적으로 의미(meaning)와 의미론(semantics)은 구별이 된다. 전자는 문맥에서 결정지어지는 의미 혹은 단어 자체의 의미와 같은 의미의 일반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반면 후자(semantics)는 문장에서 중추적으로 감당하는 핵심적인 의미론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단어나 문법적 요소가 문장의 문맥에 따라 각기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만 중추적인 뜻과 기능은 단일하다.

24) R. B. Matlock, "Detheologizing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Cautionary Remarks from a Lexical Semantic Perspective", *Novum testamentum* 42 (2000), 6; S. E. Porter, "θαυμάζω in Mark 6:6 and Luke 11:38: A Note on Monosemy", *BAGL* 2 (2013), 75-79.

다의성(polysemy)은 하나의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단의성(monosemy)은 언어학적 기호의 의미 가능성(meaning potential)을 설명하는 방법론이다.[25] 즉, 하나의 어휘가 다중의 의미를 동시에 포괄하기보다는 하나의 어휘(lexeme)는 핵심이 되는 의미의 중심부가 있고 문맥에 따라 의미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πίστις의 핵심적인 의미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말뭉치 언어학적(corpus linguistics) 접근에 의하면 하나의 어휘가 특정 구문에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한다.[26] 그렇다면 다양한 용례의 파악만 연구하는 양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이 아니라 πίστις의 구문론적 분석(syntactical analysis)과 연음 관계 분석(collocation analysis) 같은 질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이 더 중요하다.[27] 달리 표현하자면 πίστις가 무슨 격(case)의 형태로 특정 구문에서 특정 단어들과 함께 등장할 때 발견될 수 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은 잠시 구문 분석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3.1.2. πίστις와 그리스어 격(Case) 의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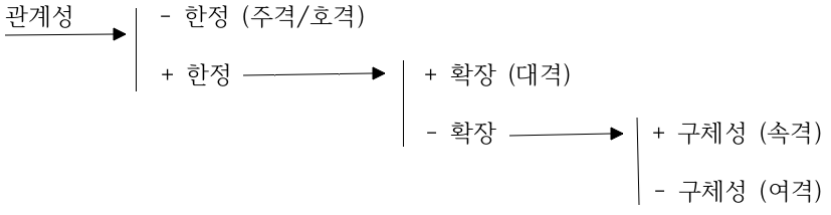
두 번째로 볼 의미론의 단계는 πίστις의 격(case)의 의미이다. 그리스어 문법에 있어 최대주의(Maximalist)적 접근을 시도하는 월러스는 그리스어 격의 모든 경우의 수를 제안한다. 그의 분류에 의하면 속격은 스물일곱 가지, 여격은 열아홉 가지의 용법이 존재한다.[28]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그리스어 격(case)의 이해는 매튜슨(D. Mathewson)이 지적한 것처럼 의미론보다는 화용론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29] 화용론적 방식은 하나의 문법 요소가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되는가에 관련한 것이다. 포터와 피츠(S. E. Porter and A. W. Pitts)의 비판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이해는 그리스어의 격(case) 자체가 나타내는 의미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명사가 문장에서 감당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답을 위한 분류이다.[30] 그러나 단어의 의미와 문

25) R. A. Wishart, "Monosemy: A Theoretical Sketch for Biblical Studies", *BAGL* 7 (2018), 107.
26) S. E. Porter and A. W. Pitts, "Πίστις with a Preposition and Genitive Modifier: Lexical, Semantic, and Syntactic Considerations in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iscussion," M. F. Bird and P. M. Sprinkle,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Peabody: Hendrickson, 2009), 37.
27) 심지어 πίστις의 다의성을 제안하는 매틀락도 구문 패턴의 분석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제안한다. R. B. Matlock, "Saving Faith: The Rhetoric and Semantics of Πίστις in Paul", 75-86.
28) R. A.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72-175.
29) D. Mathewson and E. B. Emig, *Intermediate Greek Grammar*, 2.
30) S. E. Porter and A. W. Pitts, "Πίστις with a Preposition and Genitive Modifier", 41.

장에서의 역할 외에도 그리스어 격(case)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론에 대한 고찰도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어 여격의 의미론 즉, 중추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포터와 피츠는 그리스어 격(case)의 의미를 이항구조(binary structure)방식으로 제안한다. 그들에 따르면 그리스어의 격(Case)은 기본적으로 관계성을 갖는다. 문장 안에서 다른 요소들과 관계를(예, 주어, 목적어, 간접목적어 등)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31] 즉, 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한정하고 수식하는지 혹은 어떤 단어와 의미적 연결을 보이는지에 관한 것이 그리스어 격(Case)의 기능이다. 그리스어의 모든 격(Case)이 관계성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각각의 격(Case)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론적 특징이 존재한다.

<표 1> 그리스어 격(Case) 체계와 의미론



출처: S. E. Porter and A. W. Pitts, “Πίστις with a Prepostion and Genitive Modifier”, 41.

위의 <표 1>이 나타내듯이, 주격은 의미론적으로 제한적이지 않다. 즉, 다른 단어의 보충적 설명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여 자신의 의미를 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속격은 반드시 다른 단어가 함께 따라와서 의미를 구체화해야 한다. 그러나 주격은 문장 안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주어의 기능을 감당한다. 다른 세 개의 격(Case)은 모두 단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그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보조 변수와 조건이 필요하다.[32]

두 번째로 대격은 주격보다는 문장 안에서 제한되며 의미를 확장한다. 다시 말해서 대격은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술부에 위치하며 동사와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 그렇기에 대격은 다른 단어와의 관계 안에서 한정적이며 의미의 확장 역할을 한다. 세 번째로 속격은 문장에서 비교적 위치가 자유롭다. 그 때문에 의미의 연장이나 확장은 아니지만 함께 사용되는 단어를

31) D. Mathewson and E. B. Emig, *Intermediate Greek Grammar*, 1.
32) S. E. Porter and A. W. Pitts, “Πίστις with a Preposition and Genitive Modifier”, 43.

수식하며 구체성을 더한다. '하나님의 의'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의' 혹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격 혹은 대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속격은 함께 사용되는 명사의 시간, 소유, 종류 등을 한정하고 수식한다.

마지막으로 여격은 다른 단어와의 연관성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며 대격과 같이 의미의 확장을 가져오지는 않으며 속격과 같이 어떤 대상을 구체화하지도 않는다.[33] 일반적으로 그리스어 여격은 개인적 관심, 위치, 수단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간접목적어에 사용되거나 동사의 행위를 보충하는 부가어로 사용된다. 포터에 의하면 그리스어의 여격의 의미론에 해당하는 핵심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34] 즉, 어떤 사물과 사물, 행위와 위치, 또는 행위와 수단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어 여격의 핵심적인 의미이다. 신약성경에서 대부분의 그리스어 여격은 주로 목적격이 담당하는 역할을 대신하는데 이는 구어체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35] 로우(J. P. Louw)에 의하면 그리스어 여격의 의미론은 수단과 방편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여격으로 표현되는 명사 자체가 동사 행위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한정하고 있는 동사와 함께 묶어서 이해된다는 것이다.[36]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리스어 여격의 의미는 구문에서 파악이 된다.

그렇다면 여격의 의미론에 따라 한정하고 있는 대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4:1에 적용해 본다면 πίστις는 본동사의 수단의 여격 혹은 분사의 영역을 나타내는 여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동사의 수단의 여격이라면 본동사의 행위를 한정하는 것이며 분사의 영역을 나타내는 여격이라면 분사의 행위와 직접적인 연결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πίστις는 어떤 행위와의 연결성을 보여 주는가에 따라 로마서 14:1의 번역이 달라진다. 특히 그리스어 여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모호성 때문에 전치사가 더해져 구문 안에서 의미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14:1에서는 전치사가 없이 단순 여격(simple dative)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문분석은 더 중요하다.

3.2. 구문론적 분석(Syntactic Analysis)

어휘와 그리스어 격의 의미론적 고찰을 통해 대략적인 의미의 범주를 결

33) Ibid., 44-45.
34)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5), 97-98.
35) J. P. Louw, "Linguistic Theory and the Greek Case System", 88.
36) Ibid., 83.

정했다면 다음으로는 구문론을 통해 의미를 제안할 수 있다. 이번 항에서는 해당 구절의 구문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의미를 설명하고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다른 구문과의 비교를 통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결정할 것이다. 로마서 14:1은 두 가지 형태로 구문 분석이 가능하다.

<표 2> 로마서 14:1 구문 분석

구문분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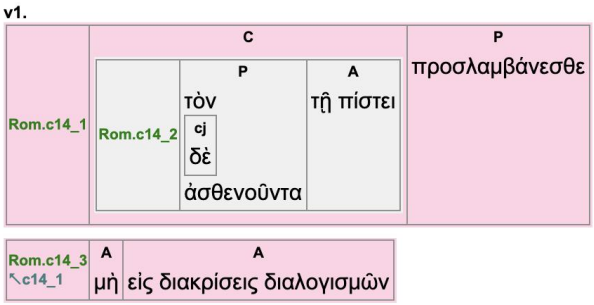
προσλαμβάνεσθε
  Τὸν δὲ ἀσθενοῦντα | τῇ πίστει (영역의 여격)
μὴ εἰς διακρίσεις διαλογισμῶν

구문분석 2.

προσλαμβάνεσθε | τῇ πίστει (수단의 여격)
  Τὸν δὲ ἀσθενοῦντα
μὴ εἰς διακρίσεις διαλογισμῶν

위 <표 2>에서 제시하는 구문 분석 1에 의하면 πίστις는 분사절에서 분사의 위치와 영역을 제시하는 여격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믿음/확신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라'로 번역이 가능하다.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구문 분석한 opentext.org는 이와 같은 구문 분석을 지지한다.

<표 3> opentext.org 의 로마서 14:1 구문 분석[37]



출처: https://opentext.org/texts/NT/Rom/view/clause-ch14.v0.html

37) Opentext의 구문 분석은 그리스어 성경의 어순을 그대로 반영한 상태에서 각 문장의 구성요소(주어, 서술어, 보어, 부가어 등)를 표기한다.

위 <표 3>의 opentext의 구문 분석에서 보듯이 로마서 14:1은 세 개의 절(clause)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절은 하나의 동사(정동사든 부정동사든 상관없이)를 포함하거나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단위를 하나의 절로 판단한다. Opentext의 구문 분석에 따르면 첫 번째 절인 분사절이 πίστις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위의 <표 2>의 구문 분석 1과 같은 형태로 πίστις를 분사의 행위를 제한하는 부가어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표 2>의 구문 분석 2에 의하면 πίστις가 본동사 προσλαμβάνω의 행위를 한정하는 수단의 여격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스어 성경에는 주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πίστις가 여격으로 등장하여 동사 행위의 수단과 위치의 기능을 하는 구문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예, 행 6:7; 16:5; 롬 4:20). 더욱이 로마서 14:1의 세 번째 절(clause)에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면 εἰς διακρίσεις διαλογισμῶν은 생략된 동사의 부가어로 볼 수 있다. 이는 첫 번째 절에서 본동사의 부가어 자리에 위치한 여격 πίστις와 구조적 평행을 이루어 '논쟁' 혹은 '비판'이 아닌 '믿음'으로 받을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8]

이와 같은 상반된 구문 분석에도 불구하고 구문 분석 1이 더 바른 분석이라고 판단하게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로마서 안에서 반복되는 구문의 패턴이 그것을 지지하며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의 문맥이 뒷받침해 준다.

먼저 πίστις를 포함하고 있는 신약성경 구절의 구문 패턴에 의하면 πίστις가 문장에서 본동사의 수단의 여격으로 기능할 때 πίστις는 대부분 본동사 뒤에 등장한다.

로마서 4:19	μὴ ἀσθενήσας τῇ πίστει κατενόησεν τὸ ἑαυτοῦ σῶμα
로마서 4:20	οὐ διεκρίθη τῇ ἀπιστίᾳ ἀλλ' ἐνεδυναμώθη τῇ πίστει,
로마서 5:2	τὴν προσαγωγὴν ἐσχήκαμεν τῇ πίστει[39] εἰς τὴν χάριν ταύτην
로마서 11:20	τῇ ἀπιστίᾳ ἐξεκλάσθησαν, σὺ δὲ τῇ πίστει ἕστηκας.

위의 예에서 보듯이 로마서 4:19은 분사 뒤에 πίστις가 나오고 그 후에 본동사가 나오는 어순을 취하고 있다. 이때 만약 πίστις가 κατανοέω라는

38) 골 3:2에도 비슷한 형태의 구문이 사용된다.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동일하게 부정소사 μή와 동사의 생략 τὰ ἄνω φρονεῖτε, μὴ τὰ ἐπὶ τῆς γῆς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9) 롬 5:2의 τῇ πίστει 는 본문비평상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NTG[28]과 UBS[5]가 포함하고 있는 분문으로 구문 비교를 진행하도록 한다.

동사의 수단의 여격이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자신의 몸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는 매우 어색한 이해가 된다. 오히려 이 문장은 분사의 형태로 표현된 ἀσθενέω, 즉 약함의 범위와 영역을 믿음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시 말해서 πίστις가 본동사의 수단의 여격으로 기능하지 않고 분사의 영역을 제한하는 여격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로마서 4:19와는 다르게 로마서 4:20과 5:2에서는 πίστις가 본동사 뒤에 위치하면서 본동사의 수단과 방법의 여격으로 기능한다. 로마서 4:20은 두 개의 절(clause)을 포함한 문장인데, 두 절(clause)은 부정소사 οὐ와 접속사 ἀλλά로 인하여 병렬 구조(paratactic structure)를 형성한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 강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때 πίστις는 부가어 위치에서 본동사 행위의 수단과 원인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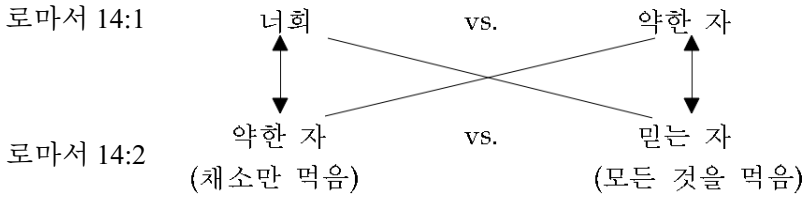
로마서 외의 신약성경에도 동일한 구문 패턴이 나타난다. 사도행전 6:7은 동사 + τῇ + πίστις[여격]의 구조를 가지며 이때 여격 πίστις는 동사 행위의 발생 위치를 나타낸다. 사도행전 16:5 역시 동사 + τῇ + πίστις[여격]의 구조를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여격 πίστις는 동사의 행위를 한정하는 위치 혹은 수단의 여격으로 사용된다. 골로새서 2:7은 주격분사 + τῇ + πίστις[여격] + 본동사의 구조를 보인다. 이때 여격 πίστις는 본동사 앞에 그리고 분사 뒤에 사용되면서 분사의 행위를 위치와 영역을 한정하고 있다.

로마서 11:20은 본동사 앞에 여격 πίστις가 사용되면서 구문론적인 패턴과 다르게 보이지만, 이 구절에 나타난 두 절(clause)은 하나의 동사만 가지기 때문에 어순과 상관없이 πίστις가 어떤 동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판단하기에 수월하다. 다시 말해서 한 문장에서 정동사든 부정동사든 동사가 하나만 존재할 때 여격 πίστις는 동사의 앞이나 뒤에 자유롭게 위치하여 동사의 행위를 한정한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24 τῇ γὰρ πίστει ἑστήκατε 그리고 갈라디아서 2:20 ὃ δὲ νῦν ζῶ ἐν σαρκί, ἐν πίστει ζῶ가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두 번째로, 문맥에서 볼 때 로마서 14:1의 믿음이라는 여격 명사는 본동사가 아닌 분사와 연관성을 가지고 '연약한'이라는 분사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4>가 보여 주듯이 로마서 14:1에서 바울이 '너희'와 '약한 자' 사이의 대립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면 2절에서는 이인칭 복수 주어를 사용하는 대신 관계대명사와 삼인칭 단수 동사의 결합을 통하여 '어떤 이' 혹은 '누군가'라는 새로운 주어를 끌어들인다. 다시 말해

서 1절에서 '너희'와 '약한 자'의 대립이 이루어졌다면 2절에서는 '믿는 자'와 '약한 자' 사이의 대립이 나타난다. 믿음이 있는 자(ὁς πιστεύει)는 모든 것을 먹지만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1절에 언급된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데 반해,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인 너희와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약한 자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1절에서 πίστις는 약함의 영역을 가리키며 이는 곧 분사의 영역을 의미하는 여격으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4> 로마서 14:1-2



이제까지 살펴본 어휘의 의미론과 그리스어 여격의 의미론 그리고 구문분석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πίστις라는 단어가 여격으로 사용될 때 그와 연관이 있는 대상을 향한 확신, 믿음, 그리고 신실함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상호작용을 맺고 있는 대상을 향한 관계성을 드러낸다. 구문론적으로 πίστις가 본동사 뒤에서 동사 행위의 위치와 영역을 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장에 본동사와 분사가 함께 사용되는데 πίστις가 본동사 앞 그리고 분사 뒤에 나타날 때는 본동사가 아닌 분사의 의미를 제한한다. 그렇다면 이제 더 큰 문맥에서 믿음에 약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낸 후 πίστις의 번역을 제안해야 한다.

3.3. 문맥을 고려한 번역

서두에서 제안했듯이 '믿음'이라는 일반적이고 기독교적인 개념을 본문에 대입할 때 이해될 수 없는 해석적 질문이 생긴다. 바울은 채소만 먹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채소를 먹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 오히려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특정 음식을 먹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약함을 연결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역개정』 고린도전서 8:9는 여기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NTG[28]이나 UBS[5]에서는 고린도전서 8:9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음식과 연결하고 있는 약해짐의 대상은 '양심(συνείδησις)'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과 유사한 이야기를 로마서 14장에서도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을 향한 판단과 정죄의 시선을 금지한 바울이 명령법을 사용하여 권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각자의 마음(νοῦς)에 옳은 것을 판단하라는 것이다(롬 14:5). 다시 말해서 타인을 판단하는(κρίνω) 것은 금지하되(롬 14:4, 10, 13) 스스로 판단하여(κρίνω) 확정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롬 14:5).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것은 각자가 자기의 마음에서 확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고기를 먹는 문제도 동일하다. 각자 자기 마음과 양심에서 확신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한다. 음식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라 속되게 여기는(λογίζομαι) 사람에게 음식이 속된 것이다.[40] 즉, 양심, 마음, 생각은 모두 인간의 내적 기관으로서 특정 대상을 향한 개인의 인식을 주관하는 장소이다. 바울은 날, 음식, 우상의 제물과 같은 것은 그것을 대하는 자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확신에 따라 각 사람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로마서 14:22-23에서 바울은 이것을 더 공고하게 뒷받침한다. 바울에 의하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πίστις를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 확신/확증(δοκιμάζω)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πίστις를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바울은 여기에서 πίστις의 반대말을 '의심'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진술에서 바울은 그 πίστις와 의심을 하나님을 향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종교적 대상으로서의 믿음과 의심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개인이 음식을 바라보는 그의 내적 기관의 인식과 판단의 측면에서 πίστις를 사용하고 있다. 즉, 바울이 로마서 14에서 이야기하는 음식에 관한 πίστις는 모두 개인의 판단과 확신 자신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크랜필드(C. E. B. Cranfield)와 피츠마이어(J. Fitzmyer) 역시 πίστις는

40) 본 논문이 다루는 주제는 아니지만 로마서의 수신자를 다루는 문제에서 음식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해석적 렌즈를 제공해 준다. 특히 롬 14:14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진술은 구약적 배경과 랍비 문헌적 배경에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음식에 관한 규례에 있어서 바울은 랍비의 해석 전통과 더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Kim Doosuk, "Romans 14 and Impurity in the Mishnah", *JGRChJ* 16 (2020), 79-104를 참고하라.

그리스도를 향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41] 즉, 믿음에 강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더 높은 수준의 믿음과 행위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개인의 가치 판단과 인식에 있어서 더 확실한 신념과 양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고기를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확신과 양심이 있다. 하지만 특정 음식에 대한 확신과 양심이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게 된다.

3.4. 로마서 15:1의 강한 자

마지막으로 다룰 문제는 로마서 15:1의 '강한 자'이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로마서 15:1의 강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로 번역한다. 아마 로마서 14:1의 '믿음이 약한 자'와 대조되는 그룹의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한 번역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강한 자'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형용사 δυνατός은 신약성경에서 총 32번 사용되는데 단 한 번도 πίστις와의 연음 관계(collocation)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 칠십인역에서도 δυνατός는 자주 등장하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강함이나 신실함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대부분 개인의 신체적 능력이나 군사적 강인함을 나타낸다.

신약성경에서 δυνατός는 다음과 같은 구문의 특징을 보인다. 첫째, 접속사 εἰ와 함께 사용되어 가정적 상태를 설정한 후, 뒤에 따라오는 귀결절에 메시지의 무게를 둔다. 이때 δυνατός는 귀결절에서 일어나는 일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4:15에서 εἰ δυνατὸν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ὑμῶν ἐξορύξαντες ἐδώκατέ μοι.(만약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너희의 눈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조건절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정적으로 설정한 후 그들의 행동에 대한 강조점을 귀결절에서 나타낸다.[42]

둘째, 연결 동사 εἰμί와 함께 주격보어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때 δυνατός는 주어가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의 속성을 나타난다.[43] (예, 행 2:24 οὐκ ἦν δυνατὸν κρατεῖσθαι αὐτὸν ὑπ' αὐτοῦ. 그가

41) J. Fitzmyer, *Romans*, 688; C. E. B.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9-16*, 698, 700.

42) 이는 복음서에도 자주 사용되는 구문적 특징이다. 예) 마 24:24; 26:39; 막 13:22; 14:35; 눅 14:31

43) 다른 예로 행 2:24; 7:22; 18:24; 롬 11:23; 고후 12:10; 13:9; 딤후 1:12; 딛 1:9를 참고하라.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다.) 셋째, 여격 명사 앞에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때 δυνατόν은 여격 명사에 제한된다. 즉, 가능성의 범주가 뒤따라오는 명사에 의하여 한정된다. (예, 막 9:23 πάντα δυνατὰ τῷ πιστεύοντι; 막 10:27 πάντα γὰρ δυνατὰ παρὰ τῷ θεῷ.)[44]

마지막으로, 관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인데, 신약성경에 다섯 구절에 등장한다.[45] 이때 δυνατός는 관사와 함께 사용되면서 선행하는 명사를 보충하거나 관사에 따라 문장 안에서 주어 혹은 목적어 기능을 감당한다. (예, 눅 1:49 ἐποίησέν μοι μεγάλα ὁ δυνατός; 롬 9:22 εἰ δὲ θέλων ὁ θεὸς ἐνδείξασθαι τὴν ὀργὴν καὶ γνωρίσαι τὸ δυνατὸν αὐτοῦ) 관사가 형용사를 명사화하여 사람 혹은 사물과 같이 표현하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지위와 사회적 위치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46] 이 경우에도 δυνατός가 믿음과 관련되어 사용된 적은 없다.

로마서 15:1에서 δυνατός는 두 번 사용되며 모두 관사와 함께 쓰인다. Ὀφείλομεν δὲ ἡμεῖς οἱ δυνατοὶ τὰ ἀσθενήματα τῶν ἀδυνάτων.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한다.) 첫 번째는 선행하는 대명사와 동격으로 사용되어 '우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주어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속격의 형태를 가지며 목적어구 안에서 ἀσθένημα를 수식하며 관형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특히 바울은 '우리'라는 1인칭 복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여 자신을 '강한 자' 안에 포함하고 있다. 만약 δυνατός를 통하여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믿음이 강한 자들이며 그들이 모든 음식을 먹는 이교도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강한 자' 안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항상 유대인의 정체성을 강조했으며 이교도적 전통에 자신을 포함시킨 적이 없기 때문이다. 즉,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δυνατός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하며 이는 문맥상 음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CEB의 번역은 주목할 만하다.

> CEB 로마서 14:1-2 Welcome the person who is weak in faith—but not in order to argue about differences of opinion. One person believes in

44) 다른 예로 마 19:26; 막 9:23; 10:27; 14:36; 눅 24:19; 고후 10:4를 참고하라.

45) 눅 1:49; 18:27; 행 25:5; 롬 9:22; 15:1.

46) 예를 들어 요세푸스는 Ἰουδαίων οἱ δυνατοί(유대인들 중 권위 있는/힘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Josephus, Bell. 1.242. 하지만 이 경우에도 뒤나토스(δυνατός)는 유다이온(Ἰουδαίων)이라는 속격에 의하여 한정되며 롬 15:1과 같이 다른 대상과 동격을 나타내는 주격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 eating everything, while the weak person eats only vegetables. 15:1 We who are powerful need to be patient with the weakness of those who don't have power, and not please ourselves.

위에서 보듯이 CEB는 로마서 14:2와 15:1에 πίστις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충실히 반영한 번역을 하였다. 더욱이 로마서 15:1의 번역을 strong이 아닌 powerful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다. 이는 개인의 믿음의 강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사회적 혹은 정치적 위치에서의 강함을 암시하는 기호로 전환하여 번역하고 있다.[47]

쥬잇(R. Jewett) 역시 강함을 믿음의 강함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정치적인 주도권으로 해석하고 있다.[48] 또한 약함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14장의 약한 자들을 지칭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지위가 약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케제만(E. Käsemann)도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강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주도적인 그룹을 지칭하는 것이며 더 많은 힘을 가진 자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책임은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제안한다.[49]

이제까지 제안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스어 δυνατός가 사람에게 사용되었을 때, 개인의 능력과 가능성의 의미로 사용되며,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과 여격으로 결합될 때는 그 대상에 대한 능통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한 개인의 믿음의 강함이 아니라,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로마서 15:1에 등장하지 않은 πίστις를 끌어들여 '믿음이 강한 자'로 번역하는 것은 신약성경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용례와 연음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로마서 14장에서는 πίστις가 문장에서 목적어, 보어, 혹은 부가어로 4번 등장하지만 로마서 15장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로 보건대, 로마서 15:1은 형용사 δυνατός가 믿음을 수식하며 믿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만한 근거가 없다.

---

47) 이와 같은 해석은 제안하는 학자들의 연구물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로마 공동체의 상황을 고려한 해석으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의 추방과 네로 황제 때의 재유입, 그로 인한 공동체 안의 정치적 지형도의 변화를 포함한 해석이다. 또한 로마라는 사회적 배경을 감안할 때,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자들보다 이교도적 배경을 가진 자들이 훨씬 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더 주도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48) R. Jewett, *Romans*, 876.

49) E. Käsemann, *Commentary on Romans*, 381.

4. 결론

본고는 로마서 14:1-2의 ‘믿음이 약한 자’의 번역에서 πίστις가 ‘믿음’이 아닌 ‘확신’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합하며, 로마서 15:1의 ‘우리 믿음이 강한 자’는 ‘할 수 있는/가능한 우리’ 혹은 ‘먹을 수 있는 우리’로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제안은 πίστις와 δυνατός를 둘러싸고 있는 연음 관계 및 구문의 패턴 분석을 통해 제안되었으며 ‘πίστις=믿음’이라는 기계적 전환이 야기할 수 있는 해석적 오류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또한 로마서 15:1의 잘못된 해석에 따른 번역의 수정이기도 하다. 번역은 해석을 통한 의미의 발견에서 제안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왜냐하면 번역은 단순 기호체계의 변환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각기 다른 기호체계를 가진 자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문자적 번역과 더불어 각 언어가 상응하는 단어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은 필연적으로 독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른 해석에 따른 번역의 제안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Keywords)

로마서 14-15장, 피스티스(Πίστις), 뒤나토스(Δυνατός), 약한 자와 강한 자, 번역과 의미론.

Romans 14-15, Pistis(Πίστις), Dunatos(Δυνατός), The Weak and the Strong, Translation and Semantics.

(투고 일자: 2024년 1월 22일, 심사 일자: 2024년 2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4월 11일)

<참고문헌>(References)

굽타, N.,『바울과 믿음 언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지적 동의인가, 신실함 행함인가』, 송동민 역, 고양: 이레서원, 2021.

이승현, "바울의 Πίστις 이해: 신뢰, 믿음 혹은 순종? 모건(T. Morgan)의 Πίστις 이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성경원문연구」49 (2021), 168-195.

최선미, "로마서의 약한 자와 강한 자: 로마서 14:1-6을 중심으로",「대학과 선교」36 (2018), 107-144.

Bassnett-McGuire, S., *Translation Studies*, London; New York: Methuen & Co. Ltd, 1983.

Catford, J. C.,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Cranfield, C. E. B.,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9-16*, ICC, Edinburgh: T. & T. Clark, 1975.

Das, A. A., *Solving the Romans Debate*, Minneapolis: Fortress, 2007.

Donfried, K. P., ed., *The Romans Debate*, Peabody: Hendrickson, 1991.

Fitzmyer, J. A.,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3, New York: Doubleday, 1993.

Gaventa, B. R., *When in Romans: An Invitation to Linger with the Gospel according to Paul*, Grand Rapids: Baker, 2016.

Holmes, J. S., ed., *The Nature of Translation*, The Hague & Paris: Mouton & Co, 1970.

Jewett, R., *Romans: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7.

Käsemann, E., *Commentary on Romans*, G. W. Bromiley, trans., Grand Rapids: Eerdmans, 1980.

Kim, D., "Romans 14 and Impurity in the Mishnah", *JGRChJ* 16 (2020), 79-104.

Köstenberger, A. J., Merkle, B. L. and Plummer, R. L., *Going Deeper with New Testament Greek: An Intermediate Study of the Grammar and Syntax of the New Testament*, rev. ed., Nashville: B&H Academic, 2020.

Louw, J. P., "Linguistic Theory and the Greek Case System", *Acta Classica* 9 (1966), 73-88.

Mathewson, D., and Emig, B. E., *Intermediate Greek Grammar: Syntax for Students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6.

Matlock, R. B., "Detheologizing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Cautionary Remarks from a Lexical Semantic Perspective", *Novum testamentum* 42 (2000), 1-23.

Matlock, R. B., "Saving Faith: The Rhetoric and Semantics of Πίστις in Paul", M. F.

Bird and P. M. Sprinkle,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Peabody: Hendrickson, 2009, 73-89.

McKnight, S., *Reading Romans Backwards: A Gospel of Peace in the Midst of Empire*, Austin: Baylor University Press, 2019.

Minear, P. S., *The Obedience of Faith: The Purposes of Paul in the Epistle to the Romans*,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19, London: S.C.M., 1971.

Moo, D. J.,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Morgan, T.,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Pistis and Fides in the Early Roman Empire and Early Church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Nida, E. A., and Taber, C. 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82.

Porter, S. E.,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5.

Porter, S. E., *The Letter to the Romans: A Linguistic and Literary Commentary*, NTM 37, Sheffield: Sheffield Phoenix, 2015.

Porter, S. E., "θαυμάζω in Mark 6:6 and Luke 11:38: A Note on Monosemy", *BAGL* 2 (2013), 75-79.

Porter, S. E. and Andrew W. Pitts, "Πίστις with a Preposition and Genitive Modifier: Lexical, Semantic, and Syntactic Considerations in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iscussion", M. F. Bird and P. M. Sprinkle,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Peabody: Hendrickson, 2009, 33-53.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Wishart, R. A., "Monosemy: A Theoretical Sketch for Biblical Studies", *BAGL* 7 (2018), 107-139.

<Abstract>

An Examination for the Translation of the Weak and the Strong in Romans 14:1-2; 15:1

Doosuk Kim
(Kwangshin University)

The present article suggests a reassessment of the translation of 'the weak and the strong in faith' in Romans 14:1 and 15:1. The Greek word πίστις does not mean faith exclusively but is employed in different contexts to indicate various meanings such as faithfulness, confidence, pledge, and loyalty. Most of the English and Korean translations, however, render πίστις in Romans 14:1 into faith. Considering that Romans 14 and 15 concern the conflict between Jewish Christians and ex-pagan Christians, such translation may cause the misrepresentation that Jewish Christians have a weaker faith in God but a stronger faith in God, on the other hand, the ex-pagan Christians have. In this line of thought, this paper reconsiders the translation of πίστις by investigating semantics, syntactic patterns, and the context of πίστις. The current research then proposes that πίστις ought to be rendered into 'confidence' rather than 'faith' in Romans 14:1, and as 'we, who are able [to eat]' instead of 'we, the strong in faith' in Romans 15:1. Such alternative translation is based on the collocation and syntactic analysis of πίστις and δυνατός, and it helps to avoid the fallacy caused by the mechanical translation from one linguistic sign to another.